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 (명동·동광명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특별요금형성세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SK 마운드냐 - 두산 기동력이나

한국시리즈 2년 연속 맞대결 ... 곰 작년 패배 설욕 벌러

26일 인천 문학구장서 1차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6차전에서 두산이 삼성을 누르고 4승2패 성적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하자 SK 와이번스 김광현 감독은 "예상했던 대로 두산이 올라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감독은 지난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두산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4승2패

라는 결과까지 예상했다. 김 감독의 이런 예상은 두말할 필요없이 두산의 빠른 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 8일부터 문학구장에서 자체 훈련을 해온 SK는 두산의 기동력 야구를 뛰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야수들의 빠른 발을 뭉기 위해 내놓았던 대처법을 상당히 참고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투수의 투구 간격을 늘리는 방법으로 두산 주자의

도루 타이밍을 뺏았다. 그 결과 두산의 도루는 한 경기 평균 한번으로 제한됐다. SK 선발 투수는 김광현, 채병용, 케니 레이번, 송은범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1차전에 에이스 김광현이 나설지는 아직 미정이다. 김광현이 최근 연습경기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였기 때문. 김 감독은 "그날그날 컨디션을 보면서 선발 투입 순서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요원 중 용병 에스테반 안은 한국시리즈 명단에서 빠졌고, 미리 집으로 돌아갔다. 정대현의 컨디션 회복을 믿는다는 얘기지만 정대현이 흔들리면 SK 뒷문

이 불안해진다는 뜻도 된다. 시즌 막판 부상으로 고심한 SK는 타선을 짜느라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이호준, 정경배, 박정권은 결국 부상에 서 돌아오지 못했고, 이진영과 박경완만 합류했다. 이에 따라 1루수 자리에는 주로 이진영을 기용할 전망이다. 이진영과 박재홍, 박재상, 정성호 등이 타격감을 잃지 않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정호의 난조를 걱정하고 있다.

23일 하루를 쉬 SK는 24일과 25일 가벼운 훈련으로 몸을 풀 뒤 한국시리즈를 맞이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이선화 "3승 보이네"

그랜드 차이나에어 LPGA 1R 2위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언 시스템'의 에이스로 자리잡은 이선화(22·CJ)가 시즌 세번째 우승을 향해 가벼운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선화는 24일 중국 하이난 하이커 웨스트골프장(파72·6천422야드)에서 열린 그랜드 차이나에어 LPGA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쓸어담아 6언더파 66타를 쳤다. 9언더파 63타를 몰아친 로라 디아스(미국)에게 선두 자리는 내줬지만 3타차 2위에 오른 이선화는 7월 P&G 뷰티 NW아 칸소캘퍼연립 제패 이후 3개월 만에 우승 기회를 만들었다.

이선화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40여 명의 한국 선수 가운데 이번 시즌 맨 먼저 우승 물꼬를 텄고 유일한 시즌 2승 선수이다. 5언더파 67타를 때린 최혜정(23·카스코)이 카렌 스티플스(스코틀랜드)와 함께 공동 3위를 달린 가운데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도 4언더파 68타를 치며 공동 5위에 올라 선두그룹에 합류했다.

김인경(20·하나금융), 안시현(23), 김영(28), 강지민(28), 김초롱(23) 등 5명은 공동 9위(2언더파 70타)에 포진해 중국 땅에서 한류 돌풍을 예고했다.



한국의 이선화가 24일 중국 하이난 하이커 웨스트골프장에서 열린 그랜드 차이나에어 LPGA 1라운드에서 멋진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2차례 우승을 따내며 반짝했지만 이후 중위권을 맴도는 평범한 선수로 전락한 디아스는 무려 10개의 버디를 뽑아내며 모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연아 "강렬한 연기로 왕관 지킬게요"

2008-2009 그랑프리 시리즈 출격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1천800m의 작은 '얼음 세상'에서 월월 날아올라 한국 피겨의 감동을 전 세계 피겨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만 남았다.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7개월간의 휴식을 마치고 마침내 2008-2009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출격한다.

여왕의 재림을 알리는 첫 무대는 24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공식연습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다.

김연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쇼트프로그램에, 27일 오전 5시부터 프리스케이팅 연기에 나선다. 두 경기 모두 SBS가 생중계한다.

지난 23일 저녁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 도착한 김연아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24일 오전부터 대회가 치러질 '컴캐스트 아레나(Comcast Arena)'에서 40여 분에 걸쳐 공식훈련을 치렀다. 새로운 쇼트프로그램인 '죽음의 무도'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자리였다.

지난 시즌 사용한 '박쥐 서곡'보다 강렬해진 느낌을 주는 쇼트 프로그램 배경음악에 맞춰 김연아의 안무도 강해졌다는 게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의 설명이다.

김연아는 이날 오전 공식 훈련에서 쇼트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연습했다. 프로그램 시작과 마지막에 강한 손동작을 넣어 새 음악인 '죽음의 무도'의 강렬함에 맞춘 안무가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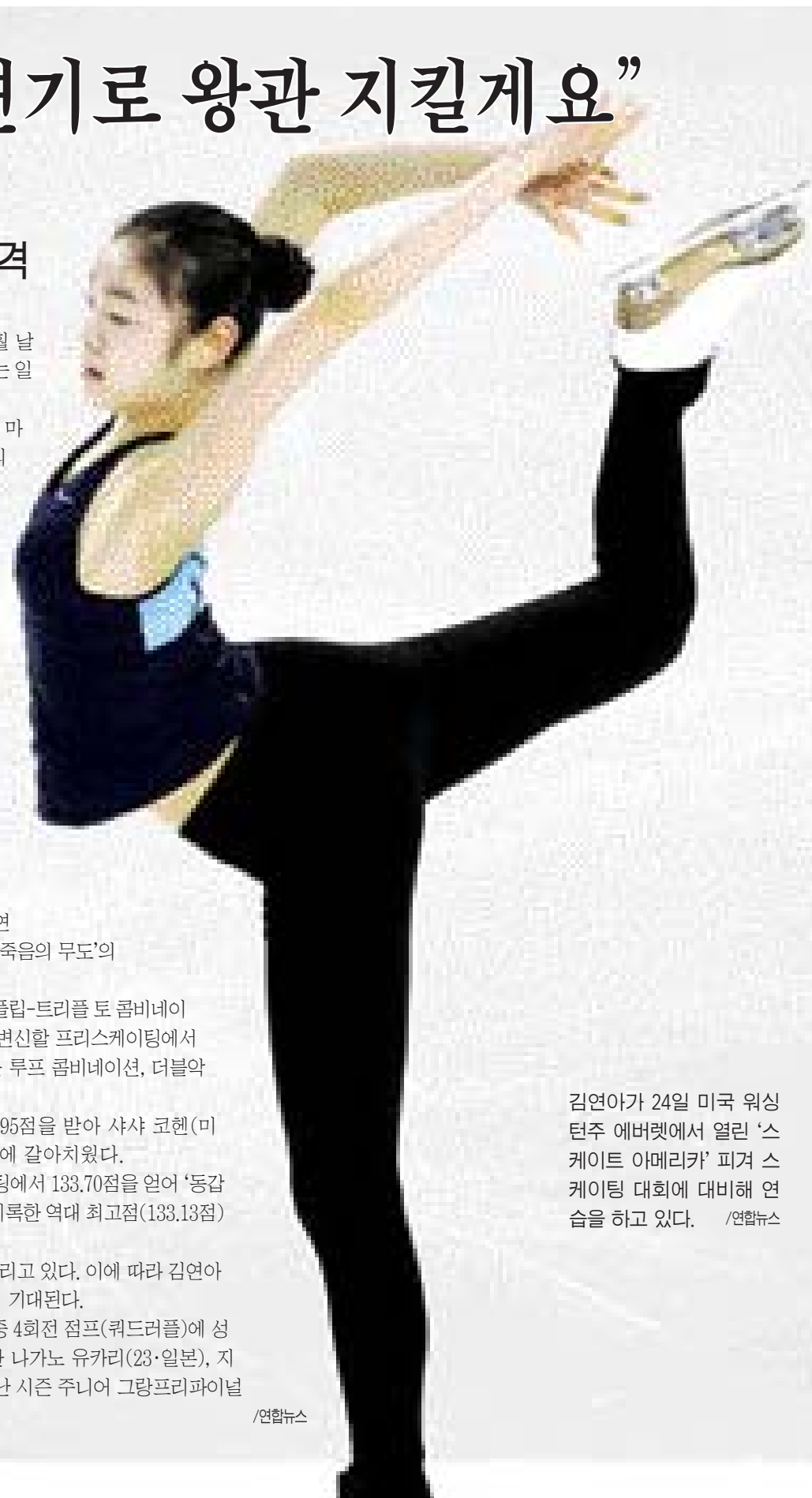
김연아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쇼트프로그램에서는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러츠, 더블 악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공주'로 변신할 프리스케이팅에서도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 콤비네이션, 트리플 러츠-더블 토-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더블 악셀-트리플 토우 콤비네이션 등을 연기한다.

김연아는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71.95점을 받아 샤샤 코헨(미국, 71.12점)이 2003년 10월 세웠던 역대 최고점을 3년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김연아는 또 지난해 11월 그랑프리 시리즈 5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가 그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점(133.13점)도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개인 총점에서는 197.20점으로 아사다(199.52점)에게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연아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또 한 번 개인 최고점 경신 행진에 나설지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김연아와 함께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공중 4회전 점프(퀴드러플)에 성공했던 안도 미키(21·일본)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4위를 차지한 나가노 유키리(23·일본), 지난 시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자 레이철 플랫(16·미국),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파이널 우승자 미라이 나가수(15·미국) 등이 우승 경쟁에 나선다. /연합뉴스



김연아가 24일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열린 '스케이팅 아메리카' 피겨 스케이팅 대회에 대비해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兩朴' 시즌 2호골 사냥

(지성·주영)

지성, 25일 에버턴전 원정 경기

주영, 26일 툴루스전 출격 준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7)과 프랑스 리그1 AS모나코의 박주영(23)이 나란히 골 사냥에 나선다.

박지성은 주말인 25일 오후 8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파크에서 열리는 2008-2009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에버턴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다.

출격 가능성은 큰 편이다. 박지성은 지난 15일 축구대표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폴타임을 뛰고 19일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웨스트브롬전에서 70분을 소화하며 실 거를 이 없었지만 사흘 만인 22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셀틱과 홈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돼 10분을 뛰며 체력을 가다듬었다.

현재 맨유의 측면 원포워드 자원을 보더라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루이스 나니가 셀틱전에서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지성에게 선발 출전 기회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라운드에서 나선다면 골 소식이 기대된다. 박지성은 이번 시즌 첫 정규리그 선발 출전 이었던 지난달 21일 첼시와 4라운드 원정에서 시즌 첫 골을 터트린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프랑스 무대에 안착한 박주영은 26일 오전 4시에 열리는 툴루스와 리그1 10라운드 원정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팀에 잘 적응했고 주전 자리도 확실히 거머쥔 박주영이지만 득점포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박주영은 지난달 14일 로리앙과 5라운드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 꿈의 데뷔전을 치른 이후 한 달 넘도록 5경기에서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지난 19일 니스와 홈경기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골 감각은 유지하고 있는 박주영은 확실한 해결사 역할로 최근 4연패에 빠진 팀을 구해내야 한다. /연합뉴스



25일(토)

- ▲2008 PGA 프라이스 닷컴 오픈 2R (05:00·SBS스포츠·SBS골프)
- ▲2008 LPGA 그랜드 차이나에어 LPGA 2R(13:00·SBS골프)
- ▲2008 일본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17:50·SBS스포츠)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튼: 맨체스터Utd)(20:00·MBC ESPN), (웨스트브롬위치: 첼시)(23:00·MBC ESPN)
- 26일(일)
- ▲2008 PGA 프라이스 닷컴 오픈 3R

- (05:00·SBS스포츠·SBS골프)
- ▲2008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 <필라델피아: 템파베이>(08:50·X-SPORTS)
- ▲2008 ISU 피겨 그랑프리 여자쇼트 (10:45·SBS)
- ▲2008 LPGA 그랜드 차이나에어 LPGA FR(13:00·SBS골프)
- ▲2008 K리그(광주: 제주)(15:10·MBC)
- ▲2008 일본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 (17:50·SBS스포츠)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첼시: 리버풀)(22:30·MBC ESPN)
- 27일(월)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웨스트햄: 아스날)(01:00·MBC ESPN)